

“공중 나는 새를 보라 ”

오늘은 추석입니다. 추석은 가을의 풍성함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리셨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이 섭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것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돌 중 하나를 결단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를 통해 기쁨으로 살든지, 불평하며 패배의식 속에 살든지 말입니다.

노르웨이에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지구에 내려와 각종 씨앗, 즉 미움, 시기, 슬픔, 눈물을 마구 뿌려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동네에서만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그 동네의 이름은 '기쁨'이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어떤 슬픈 상황과 절망적인 처지에서도 언제나 감사하며 살더라 합니다. 여기서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는 속담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감사를 말로 표현했습니다. 감사는 마음으로만 간직하기보다 표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나 불평이나 모두 바이러스와 같아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자꾸 말과 행위로 표현해야 이 사회에 감사의 선한 영향력이 퍼져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고립'과 '부자유'란 점에서 비슷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소퍼 목사는 “감옥과 수도원의 근본적인 차이는 불평하며 사느냐, 아니면 감사하며 사느냐는 차이일 뿐이다. 수감된 죄수가 수도자와 같은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감옥은 수도원으로 승화될 것이고, 반면에 수도자가 불평의 마음을 가질 때 수도원은 감옥으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고 싶으면 감사의 삶을 살 것이요, 지옥의 삶을 맛보고 싶으면 불평하면서 살면 됩니다. 감사나 불평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가져다줍니다. 다윗은 감사함으로 최고의 가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나의 감사를 통해 우리 가문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가족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 추석 가정예배순서지



일시 : 9월 25일(금)

장소 : 각 가정의 정한 곳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림교회**

위임목사 : 최 용 희

임동 예배당: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7 T.525-5252 F.525-5260
수완 예배당: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완길 303 T.525-0303 F.525-0301

www.suhrim.or.kr

함께 한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와 이름에 있도다”

목 도 다 같 이

사 도 신 경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588장..... 다 같 이

- 1.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것이 없어도 세상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것 무어나
- 2.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 씌우고 안해도 솔로몬의 입은 웃도 이꽃만 못하였네 아궁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 3.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아버지는 너희 쓸것 아신다
- 4.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일을 위하여서 아무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하지 말라 오늘 고생죽하다

성 시 교 독105.(감사절 1)..... 다 같 이

인도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가족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흠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인도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가족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인도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가족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불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인도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이다

가족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인도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가족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역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같이: 여호와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기 도 가 족 중 에 서

성 경 봉 독 사무엘하 7장 25~29절 인 도 자

25 여호와 하나님이며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6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27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리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8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말 씀 가정을 위한 기도 가 족 중 에 서

기 도 설 교 자

찬 송478장..... 다 같 이

- 1.참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숨씨 깊도다
- 2.참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아침해와 저녁놀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 3.참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하도다 아멘

주 기 도 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